



Ryu

긴 휴식 감 떨어졌나

또 1회 징크스... 초반부진 14승 불발

“몸 상태는 괜찮다. 12일간 쉬는 것도 좋았다. 다음에 애리조나와 상대하기 전에 타자들 충분히 연구하겠다.”

12일(한국시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홈 경기에서 패전투수가 된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우려를 낳았던 허리 통증이 없어졌으며 애리조나와 리턴 매치 때는 설욕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류현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애리조나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등판해 1회에 만 첫 타자부터 3연속 안타를 내주며 2실점했다.

2회에도 선두 타자 헤라르도 파라를 3루까지 보낸 뒤 터피 고스위시에게 2루타를 내줘 한점을 더 내줬다.

총투구수 88개를 기록한 류현진은 1회(21개)와 2회(17개)에 합계 38개의 공을 던지면 여전히 '1회 징크스'를 보였다.

부상과 등판 일정 조정 때문에 11일간 휴식을 취한 뒤 마운드에 다시 선 류

현진은 이날 제구가 잘 되지않고 구위도 좋지 않았다. 직구는 높게 형성됐고 커브, 체인지업 등 변화구 각도도 미묘했다.

류현진은 3회부터 안정을 되찾아 6회까지 실점 없이 막았으나 타선이 한 점도 내지 못하면서 0-3으로 뒤진 7회 초 브랜든 리그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류현진은 “내가 못 던진 것은 아닌데 타자들이 잘 노려서 쳤다”면서 “그나마 점수를 많이 주지 않은 것이 위안거리”라고 말했다.

팀에서 포스트시즌 제3선발 자리를 놓고 리키 놀라스코와 경쟁하는 류현진은 “포스트시즌 선발 자리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고, 어떤 역할이든 팀이 원하는 자리에서 뛰는 것이 선수”라고 밝혔다.

한편 류현진은 오는 18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영암 F1 그랑프리 우승 트로피 공개

삼태극·삼족오 형상화

2013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우승 트로피가 처음 공개됐다.

F1 대회 조직위원회는 12일 영암 F1경주장 홍보관에서 2013 F1 한국대회 우승 입상자(1~3위)와 팀에게 시상할 트로피의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에 공개된 트로피는 모두 5개로, 선수 1·2·3위와 우승팀에 각각 수여되며 1개는 F1 홍보관에 전시된다.

트로피를 디자인한 김기라 국민대 교수는 “우주의 궁극적 원리로써 오랜 옛날부터 한

민족 고유의 상징으로 사용된 '삼태극'과 고려인이 원형의 태양 속에 그려 넣어 우리 문화의 구심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삼족오'를 형상화했다”고 밝혔다.

또 “트로피 바깥의 동심원들은 엄청난 속도로 트랙을 달리는 F1자동차의 모습을 상징화했으며 최후로 유리과 금속을 동시에 사용해 제작함으로써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승 트로피는 오는 10월 6일 2013 F1 한국대회 결승전이 끝나는 오후 5시에 시상식에서 전 세계인에게 선보인다.



우즈-매킬로이 중국서 한판승부

내달 28일 두번째 매치플레이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 타이거 우즈(미국)와 4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중국에서 벌이는 두 번째 매치 플레이 일정이 확정됐다.

미국 스포츠캐슬을 전문 채널 ESPN은 우즈와 매킬로이가 10월 28일(한국시간) 중국 하이난섬 하이커우의 미션 힐스 골프장(파 73·7808야드) 블랙스톤 코스에서 맞붙는다고 12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전했다.

매킬로이는 지난해 10월 중국 정저우의 진사 레이크 골프장에서 우즈와 매치플레이를 벌여 1타 차로 승리했다. 당시 우즈는 초청료 200만 달러(약 22억원), 매킬로이는 100만 달러(11억원)를 받았다. 올해 초청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5승을 수확하며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한 우즈는 이번주 BMW 챔피언십, 다음주 투어 챔피언십에 잇달아 참가한 뒤 한 주를 쉰다.

그는 10월 3일부터 미국 오하이오주 퓨어필드 골프장에서 열리는 세계연합팀과 미국

대표팀 간의 격년제 골프대항전인 프레지던트즈컵에 나선다.

매킬로이와 중국에서 이벤트 경기를 치른 뒤 11월 7일부터 터키 항구 오픈에 출전해 유럽골프팬들에게 인사하고 12월 5일부터 노스웨스턴 투어 올드펄러지 행사를 끝으로 시즌을 마감한다.

반면 올해 PGA 투어에서 준우승 1번에 그쳐 투어 페덱스컵 포인트 랭킹에서 41위로 추락한 매킬로이는 BMW 챔피언십에 출전하지만 포인트 랭킹 상위 30명만 나가는 투어 챔피언십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매킬로이는 우즈와 매치플레이를 끝내고 10월 31일부터 벌어지는 WGC-HSBC 챔피언십 대회에 나선 뒤 터키항구 오픈에서 다시 우승과 격돌한다.

유럽골프투어에서도 시즌 순위 53위에 불과한 매킬로이가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시즌 최종전인 DP 월드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하려면 60위 이내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유럽투어 대회인 터키항구 오픈에서 막판까지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올림픽 역도 챔피언 3인방 15일 총출동

엄윤철·김은국·림정심

애플리케이션수권 메달 사냥

북한의 올림픽 역도 챔피언들이 평양에서 열리는 아시아올림픽선수권대회에서 15일 하루에 총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공개된 대회 일정표에 따르면 15일에는 남자 56kg급, 62kg급, 여자 63kg급, 69kg급 경기가 치러진다. 이 체급에는 지난해 런던올림픽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북한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활약하고 있다.

엄윤철(22)은 런던올림픽 남자 56kg급에서 웅상 올림픽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북한에 금메달을 선사했다. 북한 역도의 에이스 김은국(25)은 같은 대회의 남자 62kg급에서 함께 세계기록을 갈아치우며 우승했다. 림

정심(20)은 런던올림픽 여자 69kg급에서 북한에 세 번째 역도 금메달을 안겼다.

이에 따라 대회 나흘째인 이날은 북한이 전체 금메달을 독식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스포츠에 큰 관심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날 역도장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한국 선수단에서는 여자 63kg급 염옥진(하이트진로), 69kg급 정지연(고양시청), 남자 56kg급 고석교(고양시청), 62kg급 김민성(아산시청), 김성효(광주은행)가 플랫폼에 오른다.

한국 선수 가운데 우승할 가능성이 있는 원정식(23·고양시청), 천정평(28·수원시청)은 16일 각각 남자 69kg급, 85kg급 경기에 나선다.

끝내기에 울던 끝내기로 웃다

올 시즌 위기관리 실패...타선·불펜 2% 부족 역전패 시달려
SK전 모처럼 뒷심 발휘... 선수들 '긍정의 힘' 흥겨운 승 불려

끝내기 승에서 '호랑이 군단'의 과거와 미래를 본다.

역전패에 울던 KIA 타이거즈가 지난 11일 SK와의 군산 홈경기에서 모처럼 끝내기 승을 만들어 한껏 웃었다. '그들만의 가을리그' 팀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4강 후보 SK를 상대로 얻은 짜릿한 승리. 그 속에서 올 시즌 실패 이유와 미래의 희망을 본다.

◇위기 타파를 위한 난세의 영웅

11일 SK 사이드암 백인식에 맞선 KIA 투수는 1987년생 동갑내기 좌완 박경태였다. 선발로는 시즌 두 번째 등판. 들쭉날쭉한 투구로 애를 태우던 박경태는 리빙딩 체제 속에서 모처럼 선발 기회를 얻었다.

난타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두 투수의 힘겨투기는 7회를 넘어갔다. 1-1로 맞선 7회 2사1루에서 백인식이 먼저 마운드를 내려가면서 박경태가 관정승을 거뒀다. 박경태는 8회 2사까지 책임지면서 최다 투구수(94개), 선발 첫 비자책 경기 기록도 썼다. 엄지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 속에서 만든 눈부신 피칭이었다.

기대하지 않았던 박경태의 기대를 넘은 호투에 KIA는 끝내기 승을 연출할 수 있었다.

KIA의 올 시즌 실패는 위기관리의 실패다. 초반 시원한 타격으로 마운드 약점을 가리며 승승장구했지만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위기가 왔다. 부상과 9구단 체제의 일정이라는 돌발 변수 앞에 무기력했던 KIA는 결국 끝없는 추락을 했다. 이렇다할 모수와 새 얼굴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등 분위기 반전을 위한 난세

의 영웅이 없었다.

◇지키는 불펜과 끝내는 뒷심

1-1로 맞선 8회 2사에서 신창호를 시작으로 KIA의 불펜이 가동됐다. 1루수 황정립이 최정의 플라이를 놓치자 삼동삼이 구원에 나서 박정권을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삼동삼은 9회 불넷을 내준 이후 도루, 포수 실책으로 무사 3루에 몰렸지만 김상현과 대타 이재원을 연속 삼진으로 잡아냈다. 마지막 해결사는 윤석민이었다. 윤석민은 두 개의 공으로 3루수 땅볼을 만들어 9회를 마무리 했다. 모처럼 물흐르듯 한 불펜 덕에 야수들은 기분 좋은 끝내기의 기회를 잡았다.

결정력 부족으로 승리를 번번히 놓쳤던 KIA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2사 1·2루에서 박기남이 9구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로 불넷을 얻으며 만루를 채웠다. 그리고 전날 공·수에서 부진했던 신종길이가 SK 마무리 박희수의 초구를 강타해 생애 첫 끝내기 안타를 남겼다.

신종길이는 “상대가 승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명수 코치님께서 타격 포인트를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셨다. 빠른 승부를 하자고 생각해 바로 공격을 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2% 부족했던 끈질긴 승부와 노림수가 승리를 위한 뒷심을 만들었다.

◇긍정의 힘

경기가 끝난 뒤 이범호는 빛나는 조연이 됐다. 박경태의 놀라운 피칭에 이범호의 조연이 있었다.

박경태는 “이범호 선배가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빠른 승부를 하라고 조언해주셨는



KIA 외야수 신종길이가 지난 11일 군산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서 끝내기 안타를 때린 뒤 박기남의 환영을 받고 있다. KIA는 박경태의 '깜짝 호투'에 힘입어 모처럼 시원한 끝내기 승을 거뒀다.

데 그제 많은 도움이 됐다. 또 마지막 선발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 내가 던지고 싶은 대로 원없이 자신있게 던지자고 생각했다. 평소보다 포크볼도 많이 던지고 후회 없이 했다”고 말했다.

박경태를 움직인 이범호는 윤석민의 승을 가장 기뻐해 준 선배이기도 하다. 승은 없는 후배가 안쓰럽다며 윤석민의 등판날 훈련을 치고 세라모니를 하기도 했던 이범호는 이날 “천신만고 끝에 3승을 했다”고 등을 두드려주며 환하게 웃었다.

이기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선수들의 동료애도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박경

이용규 어깨 수술

KIA 외야수 이용규가 어깨 수술을 받았다.

이용규는 12일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어깨 회전근개 봉합 수술 및 관절와순 정

리수를 받았다. 재활치료와 훈련에 9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음주 초 퇴원하는 이용규는 6주 동안 보조기를 착용하며 이후 본격적인 재활 운동에 들어간다. 7개월부터는 단계적 투구 프로그램에 따라 캐치볼 훈련 등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